

[세상보기] 대전우암사적공원을 인문학메카로

충남일보 | 승인 2021.06.24 10:00



남진근 대전시의원

지난 3월, 자동차 사고로 대전 동구 우암사적공원 정문이 사라졌다. 그러자 공원 핵심 시설인 남간정사는 물론 공원 내부 모습이 훤히 보였다. 시민들은 문이 사라지니까 공원이 더욱 가까워진 것 같다고 반겼다. 개방감이 발군이라는 이유에서다.

우암사적공원은 조선 후기 대유학자인 우암 송시열(1607~1689) 선생이 학문을 닦던 곳이다. 홍선기 민선 초대, 2대 대전시장인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장판각, 유물관, 서원 등의 건물을 재현해 1998년 4월 사적공원으로 탄생했다. 이곳에서는 동구문화원 주최로 우암문화제가 열린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25회차가 열린 우암문화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콘텐츠가 조금 빈약하다는 평가다.

우암공원은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도심지역에 보기 드문 5만 3120㎡(1만 6000여 평)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우암문화제 기간을 전후해 '인문학 주간'을 선포하고 우암공원을 지역 인문학 메카로 가꿀 것을 제안한다. 인문학 주간의 주체는 청소년으로서, 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지금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은 '동구'와 '대덕구'라는 지역에 갇혀 양분된 상태다. 이를 '인문학 벨트'로 묶어 대전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인문학은 오랫동안 학문 중의 학문으로 존중 받아왔다. 그러나 대학에서도 시장논리가 지배하면서 인문학에 대한 평가가 절하됐다. 취업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대학에서 인문학은 외면받고, 설자리를 잃었다. 돈 안되는 인문학은 대학 상업화의 희생양이 됐다. 그러나 대학 밖에서는 외려 일반인 사이에 인문학 열풍이 한창이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소통 능력, 리더십, 사회적 소양과 자질을 고루 갖추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 인문·예술 분야이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사회의 기반이다. 인문학은 일시적 유행이 아닌 계속해서 '인류의 교양과목'으로 배워야 할 과제다. 역사가 없이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문학이 없이 인간을 어떻게 성찰하고, 철학이 없이 사유를 어떻게 조망할 수 있겠는가. 인문학은 시대를 꿰뚫는 안목이기도 하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만들 때 "IT에 인문학의 감성을 더했다"고 말했다. 잡스가 대학을 한 학기 만에 중퇴하고 강의를 청강하면서 배운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이 우리 삶을 바꾸고, 세계를 바꿨다.

다만 인문학의 위기를 보는 온도차가 있다. 숨 가쁜 디지털 시대에 호머의 작품을 암송하고 공자왈 맹자왈 만을 논하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다. 인문학이라는 원자재만으로 승부하려 하고, 우수한 콘텐츠(contents)를 바탕으로 한 가공품 생산에 소홀했던 일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인문학 자체가 변화하는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인문학이 대중과의 소통 부재로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문학적 소양과 융복합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잘 산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 있어야 한다. 인문학은 바로 그런 가치들을 묻고 찾아가는 과정이다.

무엇보다 인문학의 가장 큰 힘은 인간이 삶의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기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월드 스타가 된 가수 사이도 '강남스타일' 노래에서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사나이"를 외치지 않았는가. 우암사적공원이 메마른 도회지에서 사회 속 개인의 상처를 달래고 보듬는 힐링의 오아시스가 된다면 이 또한 좋지 아니한가?

<대전시의원 남진근>



충남일보 webmaster@chungnamilbo.co.kr

